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을 통한 사설시조 난해어구의 해석

고정희*

1. 연구목적
2. 『朝鮮古歌謠集』에 譯載된 사설시조의 개관
3. 손진태의 번역으로 본 난해어구의 의미
4. 결론

1. 연구목적

문학작품의 어휘에 대한 정밀한 독해는 문학 감상과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사설시조의 난해어구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연구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문학사적 의의와 ‘근대(지향)성’ 논의에 치중하면서 작품과의 만남에 소홀했다는 반성¹⁾이 일어나고 있지만, 작품과의 만남을 위해 꼭 필요한 주석과 참고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²⁾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라는 주제의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2010.8.28-2010.9.25)가 열렸다. 강의자였던 김홍규 교수는 그간의 사설시조 연구 경향을 위와 같이 비판하고, 작품과의 만남을 위해 작품 속의 어휘 하나하나를 공들여 주석하고 해석하는 범례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강좌의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사설시조 작품 읽기에 있어서 어휘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한 이형대, 김석희, 권순희 교수와도 의견을 나누면서 사설시조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권순희 교수는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등, 후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 2) 김석희, 「사설시조 <각시니 내 쫓이 되나>의 의미와 의미변용」, 『조선후기 시가연구』, 월인, 2003은 여러 가집에 실린 어휘들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의미 있는 작품 해석의 실

이 글은 남창 손진태 선생이 1929년에 일본 刀江書院에서 출판한 『朝鮮古歌謠集』을 참고하여 사설시조 속의 난해어구들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남창 손진태 선생은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로 기억되지만 고전시가 연구에도 남다른 관심을 두고 여러 歌集들을 傳寫하였으며, 시조 558수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朝鮮古歌謠集』이란 제목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의 편찬 과정과 편제에 대해서는 권순희 교수의 선행연구³⁾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간략히만 언급한다.

이 책은 남창 손진태가 전사한 전사본들을 바탕으로 한 시조 選本이다. 단가 423수, 장가135수를 실고 있어 양적으로는 평시조가 많지만 이 책은 어떤 시조선집보다도 사설시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 책이다. 손진태는 「序說」을 통해 “일체의 전례를 깨뜨리고, 최초에 (작자·시대 不明의)장가를 넣고, 다음에 (작자·시대 不明의)中型歌, 이어서 (작자·시대 不明의)단가, 歷朝작가의 단가, 최후에 시대 불명한 작가의 단가와 기생의 단가를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이렇게 사설시조와 작자·시대 불명의 노래를 앞세운 것은 “그것들 속에 支那의 사상이나 감정의 옷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은 고유 조선의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나 있으니 그것들을 먼저 독자의 눈에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

국문시자인 시조를 조선국민문학의 대표적인 형태로 보는 것은 손진태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시조부흥운동가들의 주장이기도 했다. 다만 손진태가 시조부흥운동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유 조선의 모습’이 ‘사설시조’ 속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 점이였다. 최남선을 비롯한 근대의 시조부흥운동가들은 글자 수가 “3·4·4·4/ 3·4·4·4/ 3·5·4·3”인 것을 규칙이라고 하고, 시조를 이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 시조부흥운동의 과제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층 민중의 의식과 연결되는 사설시조의

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본들 간의 대조를 통해서 어휘의 지시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해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권순희, 「남창 손진태의 歌集 傳寫와 『朝鮮古歌謠集』 편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4)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刀江書院, 1929), 『손진태선생전집』 4권, 태학사, 1981, 29~30면.

형태를 버림으로써 새롭게 짓는 시조가 외형의 규칙 때문에 생명력을 잃게 했다⁵⁾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손진태가 ‘사설시조’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는 이 책의 편찬에 앞서 발표한 「詩調와 詩調에 表現된 한국사람」⁶⁾이란 글에서도 민중의 생활감정을 노래한 사설시조를 통해 한국사람의 특징을 도출한 바 있다. 손진태가 민속학자였기 때문에 사설시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데, ‘민중’에 대한 강조는 이 책의 편찬에 관여한 일본인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朝鮮古歌謠集』을 펼치면 첫 장부터 구보타 우츠보(窪田空穂), 마에마 교우사쿠(前間恭作), 츠타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의 「序」가 차례로 실려 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시다 미끼노스케(石田幹之助)의 「後序」가 실려 있다. 이 「序」를 쓴 일본인들은 모두 이 책의 편찬에 직·간접적인 공헌을 한 이들이다. 손진태는 이미 1922년에 시조 2백여 수를 원문 그대로 문어체로 직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구보타(窪田)로부터 “이것은 아직 일본어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번역의 방향을 구어체·의역으로 바꾸었다고 술회한다.⁷⁾ 약 8년 뒤에는 이렇게 번역한 초고를 가지고 이시다(石田)에게 “번역문의 措辭 기타에 있어서 개삭을 가”해 달라고 청하였고, 이에 이시다는 자신보다 조선학에 조예가 깊은 마에마(前間)의 교열을 받도록 주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책머리에 실린 세 사람의 「序」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손진태의 번역이 일본문장으로서도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치하하고, 손진태의 번역을 통해서 조선의 시조에는 支那의 영향을 벗어난 동시에 일본의 노래와도 다른 독특한 특색이 드러나 있다는 데 놀랐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설시조의 민중적 정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과 일본의 문화가 동화되기 위해서는 (조선)민중의 감정이 (일본)민중의 감정과 서로 접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⁹⁾

5)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2005, 292면.

6) 손진태, 「詩調와 詩調에 表現된 한국사람」, (1926.5) 『손진태선생전집』 6권, 태학사, 1981.

7)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 5면.

8) 이시다 미끼노스케(石田幹之助), 「朝鮮古歌謠集後序」, 위의 책, 3면.

이처럼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동화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의 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 『朝鮮古歌謠集』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아직 이 시기의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에 대한 조선인 학자들 사이의 견해차나, 이들과 일본인 학자들 간의 의식차를 논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다만 이 시조선집이 현대 연구자들에게 주는 유의함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마에마와 손진태가 시조의 어휘의 풀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손진태의 「序說」에서 “오늘까지 하나의 연구도 주석도 하지 않은 이 시조를, 나 같이 지식이 짧은 놈이 대담하게 번역을 기하는 것은 몹시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마에마 선생님의 주도된 교열에 의해서, 겨우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번역까지 이르게 된 것은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혀 놓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朝鮮古歌謠集』은 어학자였던 마에마의 고증¹⁰⁾과, 민속학자였던 손진태의 해석이 함께 교직되어 있는, 사설시조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글의 목적은 『朝鮮古歌謠集』에 譯載된 사설시조 135수를 우리말로 재번역하여 사설시조 난해구들에 대한 해석의 단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朝鮮古歌謠集』에 譯載된 사설시조의 개관

손진태는 「序說」에서 『朝鮮古歌謠集』 편찬의 母本이 된 寫本들로 『송강가사』(마에마 소장, 1747년), 『고금가곡』(아사미 소장, 1764년 판), 『가사육중』(아사미 소장, 1829년경), 『가곡원류』(동양문고본, 1840-50년경), 『청구영언』(최남선 소장, 가곡원류와 동시대로 추정), 『남훈태평가』(동양문고 소장본,

9) 츠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 「序」, 위의 책, 1~2면.

10) 마에마가 손진태에게 보낸 엽서에는 당시 마에마의 교열 과정이 일부 기록되어 있는데, 교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은 사설시조에 나오는 순우리말 어휘들이었다. 이 엽서들은 손진태 저,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2-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부록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1863년), 『여창가요록』(마에마 소장, 1870년 이전), 『歌謠』(동양문고 소장본, 1899년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권순희 교수는 이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가요』를 제외한 나머지 사본들을 자세히 살피고 『朝鮮古歌謠集』은 상당수의 작품을 『청구영언(육당본)』에서 선별하였다고 지적한바 있다.¹¹⁾ 그런데 사설시조만 본다면 상당수의 작품이 아닌 거의 전부를 『청구영언(육당본)』에서 뽑았다고 말할 수 있다. 손진태가 譯載한 사설시조의 주제, 제목, 출전과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제	일련번호	제목	출전	내용
장가 I				
행사에 관한 노래	1	관등가	청유 872	夏四月 첫여드렛 날에
	2	船祭의 노래	청유 655	물우희 沙工 물 아래 沙工 놀들이
	3	종이연 날리기	청유 671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4	별례의 노래	청유 888	一身이 사자하니
	5	조부의 노래	청유 729	늦빳 가라 기음 먹고
	6	손가락으로 눈을 끌어 올리고	청유 846	都련任 날 보려 흘제
	7	저녁 밥 일찍 끝내다	청유 879	저 건너 님이 오마커늘
	8	수컷 까마귀는 어느 것이야	남태 198	가마기가 가마기를 도차
	9	개의 노래	청유 740	바둑이 검둥이 靑插沙里 中에
	10	우리들도 서두르는 길	청유 605	靑天에 써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11	마마 자국(곰보)의 노래	청유 815	빈독빈독 뒤엎어진 놀아
	12	우리들에게도 사정이 있어서	남태 195	저 건너 풀은 산중호에
	13	두꺼비의 노래	청유 741	독거비 더 독거비 혼눈 멀고 다리 저는
	14	스무 살의 때	청유 743	少年 十五 二十時에
	15	怨佛歌	청유 847	술 아래 굶은 길노
	16	삿갓의 힘겨름	청유 622	등과 승이 萬疊山中에 만나
	17	중의 갖고 가는 물건	청유 684	등놈이 저문 스당을 어더
	18	한숨의 노래	청유 853	한숨아 細한숨아
	19	문(戶)의 노래	남태 189	窓니고져 窓니고져 (異 청유 782)
	20	기생과 노는 것은	남태 193	티빱이 자넨방은 호아장출환미쥬호고
	21	첩의 대답	청유 857	저 건너 月巖 바회 우회
	22	이제는 안 만난다고 말한다	청유 881	이제스 못보게호여이
	23	머느리의 노래	청유 889	媿어미 머르아기 낫바
	24	벚을 기다리다	남태 196	싱마 잡아 길 잘 드러
	25	여승의 노래	청유 729	削髮爲僧 저 閼氏
	26	뱃사공의 노래	청유 727	各道各船이 다 올나올 제
	27	젊으면 좋다	남태 69	각시님 옛썩든 얼굴

11) 권순희, 앞의 논문, 115면. 『朝鮮古歌謠集』의 편제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조 바란다.

	28	막덕의 어머니야	청유	890	지넘어 莫德의 어머니	
	29	우리들도 남의 여자에	청유	763	江原道 皆骨山 감도라 드러	
	30	비파금슬은 팔대왕	청유	787	琵琶琴瑟은 八大王이오	
好 色 에 관 한 노 래	31	천하에 제일 무서운 것	청유	722	天地間萬物之衆에 그 무어시 무서운고	
	32	놓지는 않겠다	古 今	286	어이허야 아니 오던다(異 청유 720)	
	33	너의 남편에게 말할거야	청유	637	일으라보즈 일으라보즈	
	34	여자들이, 떨어져서 자자	古 今	291	각시님 물너 늙소	
	35	더위 매도의 노래	청유	702	閼氏네 더위들 스시오	
	36	두꺼비의 노래	남 태	197	저건너 신진사집 시령우희 언컨거시	
	37	軍奴의 노래	청유	858	셋팓고 사오나올슨	
	38	折衝將軍	청유	831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護君 날을	
	39	창녀(女郎)와 대장간	청유	706	얼골곱고 쫓다라온 연아	
	40	게의 노래	청유	714	宅드레 동난지들 스오	
41	남자는 갖가지	청유	662	맛남진 廣州 쓰리뷔 장스		
42	理想의 남자	청유	643	高臺廣室 나는 마다		
43	아가씨의 소중한 그릇	청유	745	시악氏 쇠집 간날 밥의		
44	여합부절	청유	709	石崇의 累巨萬財와		
45	엷고 검고	청유	864	엷고 검고 키크고 살진		
46	침의 스님	청유	851	靑울치 六날 메土로 신고		
47	산매 같은 여자	청유	817	싱미 갖튼 저 關氏		
48	樓에 칠의 덩굴	청유	630	넙으란 淮陽 金城 오리남기(청유 800)		
남 녀 에 관 한 노 래	49	삼경의 玉人	청유	697	洞房華燭 三更인제	
	50	酒色讚	청유	992	酒色을 습가허란 말이	
	51	色讚	청유	657	色것치 죠코죠흔 거슬	
	52	그물을 치자	청유	1015	北京가는 驛驛官드라	
	53	가슴에 구멍을 뚫어	古 今	284	가슴의 궁글 뚫어 (異 청유834)	
	54	거미의 노래	청유	694	왕거뭇 덕거뭇들아	
	55	부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유	614	八萬大藏 부처님께 비느니다	
	56	마음 비교	청유	850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피희	
	57	귀뚜라미	청유	611	귀돌이 저귀돌이	
	58	이별이 나오는 구멍	청유	703	窓뵈게 가미춧 막히란 장스	
59	닭과 개와는	청유	672	飛禽走獸 삼긴 中에		
60	너와 나하고는	청유	670	萬古 離別 흐든 中에		
61	이불 속의 꽃	청유	619	極目天涯에 恨孤鴈之失侶호고		
62	넙에 애태우고	청유	675	넙그려 김히 든 病을		
생 활 에 관 한 노 래	63	남아의 쾌사	청유	708	大雪이 滿空山홀제	
	64	안일의 노래	청유	667	功名을 헤여흐니	
	65	산옹의 하루	청유	647	山靜호니 似太古 오	
	66	숲 속의 안락	청유	646	大丈夫 攻成身退호야	
	67	강과 호수의 노래	청유	668	漁村에 落照호고	
	68	일생의 일	청유	869	男兒의 少年行樂	
	69	仙遊의 노래	청유	871	寒松亭 자긴 솔 버혀	
	70	농가의 흥미	가 유 ¹²⁾	609	저건너 明堂을 어더(異 청유 870)	
	기 타 의	71	놀지 않고서는	청유	725	世上富貴人드러 人生을 둘만 너겨
		72	장부의 쾌사	청유	664	大丈夫 되어느서

노래	73	백년까지라도	청유 606	秦始皇 漢武帝를 누라서 壯타던고
	74	바람의 노래	청유 828	바람이 입이 업스되
	75	손오공의 노래	청유 874	花果山 水簾洞中에
장가 II				
해학 관한 노래	76	여자는 여러 가지	청유 716	閻氏內드리 여러 層이올네
	77	까마귀의 交戰	청유 625	가마귀 가마귀를 좇츠 들거고나
	78	사랑(戀)을 단단히 묶고	청유 979	스르·ㅇ을 찬찬 엮동여 뒤설머지고
	79	한숨을 어찌할까	청유 822	살쁜 怨讎 이 離別 두 字
	80	이 님을 데리고는	청유 684	님 다리고 山에 가도
	81	구십 구살의 늙은이가	청유 724	아흔아홉곱 먹은 老丈衆이
	82	술집에라도 우연히 찾으면	청유 799	가을비 甕뚝 괴 얼믄오리
	83	平盤에 수을 올리고	청유 825	던업슨 두리 斗鉢盤에
	84	꽃의 노래	청유 865	牡丹은 花中王이오
	85	님에 불꽃아서	청유 880	天寒코 雪寒한 날에
	86	말 때문에 약이 올라서	청유 974	압니다 뒤니다 中에
	87	怪石의 대신에	청유 852	니얼골 검고 얽기
	88	통장이 너가 자고 가라	청유 739	술이라 흐면 쇼 물혀듯 흐고
	89	개구리의 노래	청유 691	개고리 저 기고리
	90	좋아하는 사이	청유 812	콩밭터 드러 콩닙 뜨더 먹는
	91	며느리의 실수	청유 813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아 어이려뇨
	92	부끄럽다	청유 719	山밧티 집을 지어 드고
	93	부수고 싶은 눈이야	청유 781	눈아눈아 뒤머리질 눈아
	94	타락한 중의 노래	청유 798	長衫 쓰더 중의 적삼 짓고
95	연지분의 노래	청유 778	宅쓰레 臙脂粉들 샅오	
96	다루기 힘든 여자	청유 967	俄者俄者 나 쓰던 되 黃毛試筆	
97	衣裳도 뒤집은 상태로	청유 599	柴扉에 지긋거늘 任이신가 반기 너겨	
남 녀 에 관 한 노 래	98	새매(隼)라면	청유 824	발운갑이라 하늘노 날며
	99	여자를 희롱하는 노래	청유 818	웃는 양은 니 썩되도 죠코
	100	오늘 밤은 하나로 자자	청유 131	오늘도 저무러지게 저물머는 신리로다
	101	나의 사랑(戀)은	청유 636	스랑 스랑 고고이 티친 스랑
	102	비파의 노래	청유 701	琵琶야 너은 어이
	103	눈썹은	청유 809	눈썹은 수나뉘 안즌 듯
	104	사랑이 끊어질 때는	청유 995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105	열 명이 백 마디를 말해도	청유 837	大川 바다 흥가온더
	106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유 736	深意山 세네 바회
	107	짐작해서 들어주세요	청유 682	개암이 불기암이
	108	이 폭풍의 밤에	청유 976	바람은 地動치듯 불고
	109	헤아려 보는 것이 좋다	청유 674	梨花에 露濕도룩
	110	쇠갈고리의 노래	청유 788	뒸운 님 쭈 째어 물니치는
	111	밤죽을 훌훌 마시면서도	청유 693	金化金城 수수씩
	112	북두칠성 일곱 분님께	청유 962	北斗七星 하나 둘 셋 넷

12) 『가곡원류(육당본)』를 가리킴. 이 작품의 종장인 “농가의 흥미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는 “아마도 農歌興味는 이뿐인가 흐노라”의 번역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종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好 色 에 관 한 노 래	113	남자를 못 만나서	청유 855	새악氏 書房 못 마주	
	114	늙은 할아버지의 마음	청유 883	半 여든에 첫 계집을 하니	
	115	안고 잠까보냐	청유 750	기름에 지진 술 藥果 라도	
	116	소문이 일어나지 않게	청유 651	窓밖게 괴 누오신고	
	117	미쳐 날떨 때	청유 854	갓스플 선머슴 썩에	
	118	왜 안 듣는 거야	청유 773	關氏尼 玉貌花容 어스체 마쇼	
	119	元(밀)은 내가 준다	청유 770	피쭈발 못 먹인 희에	
	120	떨나무 과는 노래	청유 833	덕쓰레 남무들 스오	
	121	백발의 호색 늙은 년	청유 877	白髮에 환양 노는 년이	
	122	유별나게 기묘한 큰 도라지	청유 806	白花山 上上頭에 落落長松	
	풍 자 의 노 래	123	몸의 병	청유 743	이 몸에 가진 病이
		124	세상을 한탄함	청유 609	七年之旱 九年之水에도
		125	왜 독수리들은	청유 592	靑天 구름 밧게
126		애벌레	청유 747	봄가버슨 兒孩 들리	
127		북평의 큰 꿈	청유 839	간밤에 大醉 야	
기 타 의 노 래	128	차라리 다 버려줘	청유 666	大丈夫 天地間에 나서	
	129	태고의 순풍은	청유 797	李座首는 가문 암소를 타고	
	130	백화주를 빚다	청유 606	압눈에 오려를 뷔여	
	131	아들들을 데리고	청유 598	뒤회회 고사리 뜻고	
	132	空想	청유 306	불 아니 썩힐지라도	
	133	대나무 테(籥)도 멋(趣)	청유 312	호리나 몹그나 中에	
	134	忠孝不雙全	청유 649	司馬遷의 名萬古文章	
135	한양의 地勢	청유 679	春風杖策上 蠶頭 하여		

먼저 출전을 보면 『朝鮮古歌謠集』에 역재된 사설시조 135수 가운데 『청구영언(육당본)』에서 온 작품이 124수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로 는 『남훈태평가』가 7수, 『고금가곡』이 3수, 『가곡원류(육당본)』가 1수 있을 뿐이다. 손진태는 여러 사본 가운데서도 『청구영언(육당본)』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한 바 있다. 다른 傳本에 볼 수 없는 다수의 노래와, 특히 호색 류의 많은 노래가 많다는 것, 단가 687수, 장가 295수, 도합 996수¹³⁾를 신고 있어 양에 있어서는 제일의 문헌이라는 것, 특히 조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설시조를 삼백 수 가까이 신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는

『역대시조전서』에 의하면 『가곡원류(육당본)』밖에는 없다. 손진태의 「序說」에 따르면 같은 노래가 각 寫本에 의해서 각각 다소 句節이나 字句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재미 있는 쪽을 취했다고 하며, 양쪽을 보충하고 합쳐서 조립한 것도 있다고 한다. 이 작품의 경우 『청유』 870의 초·중장과 『가곡』 609의 중장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13) 단가와 장가의 수를 합하면 982수인데, 원문에 도합 996수라고 하였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손진태는 『청육』을 母本처럼 활용하게 된 것이다.

편제를 보면 사설시조를 장가Ⅰ과 장가Ⅱ로 나누었다. 장가Ⅰ편에 실린 작품들이 9행~29행인 데 비해 장가Ⅱ편에 실린 작품들이 7행~10행인 것¹⁴⁾으로 보아, 장가Ⅱ는 손진태가 『序說』에서 말한 ‘중형가(옛시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가Ⅰ에는 ‘행사에 관한 노래(30수)’, ‘好色에 관한 노래’(18수), ‘남녀에 관한 노래’(14수), ‘생활에 관한 노래’(8), ‘기타의 노래’(5수) 총 75수가 실려 있다. 장가Ⅱ에는 ‘해학에 관한 노래(22수)’, ‘남녀에 관한 노래’(15수), ‘好色에 관한 노래’(10수), ‘풍자·慨世의 노래’(6), ‘기타의 노래’(7수) 총 60수가 실려 있다.

손진태는 마에마의 주제별 가집인 『고금가곡』을 참조하면서도 『고금가곡』 속에 주제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던 ‘호색’, ‘해학’의 항목을 새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에 호색과 남녀 관계, 해학과 생활에 관한 작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주제 분류는 누가 해도 다소간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손진태가 주제를 분류한 방식을 보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해석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63<남아의 쾌사>를 ‘생활에 관한 노래’로, #72<장부의 쾌사>를 ‘기타의 노래’로 분류한 것이 그 예이다. <남아의 쾌사>는 산중에서 호기롭게 생활하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 반면¹⁵⁾, <장부의 쾌사>는 장부다움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관념적으로 노래하고 있다.¹⁶⁾ 이로써 볼 때 주제 분류에는 작품에 대한 손진태의 비평적

14) 손진태는 평시조, 사설시조 모두 3장 형태로 기록하지 않았다. 평시조의 경우는 한 장을 두 행으로 나누어 6행에 배열하였고, 사설시조는 길이가 불규칙적이라고 전제한 뒤, 한 장을 2행~6행까지 다양한 행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15) “대설이 산천을 덮었을 때/ 검은 담비의 갓을 걸치고/ 천근의 뽕활은 어깨에 걸고/ 흰 깃털의 장전은 등에 메고/ 철총마에 처서 타고/ 골짜기의 사이를 달리게 할 때/ 터무니없이 큰 한 마리의 토끼(兔)/ 놀라고 깡충하고 도망치니까/ 과녁을 겨냥하고 활을 팽팽이 잡아 당기고/ 쏘아 잡고 나서, 칼을 빼내며/ 창자를 꺼낸 후 나무꼬챙이에 꽂아서/ 장작불을 일으키고 굽기 시작하면/ 지글지글하고 기름은 푹푹 떨어진다/ 말의 등에서 술병을 내리고/ 호상의 위에 웅크리고/ 마시고는 먹고 먹고는 마시고 해서/ 기분 좋게 취한 뒤/ 혼연하고 올려다 보면/ 계곡 구름은 조각조각하고 비단 같이/ 나부껴 오고는 취한 낮에 멈추고/ 쾌해지는구나, 이 맛/ 이것을 누가 알 것인가.”

16) “대장부라고 태어나서/ 공맹안증이 되는 것 가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두를 떨쳐버리고 / 태공의 병법을 배워 내어, 뒤(升)같이 큰 大將의 도장을/ 허리 사이에 딱 붙여/ 禁壇의 위에 높게 앉고/ 천병, 만마를 하나의 호령으로/ 指揮 進退 시키는 것이야말로/ 남아의 쾌사일 것이다/ 어떻게 해도 尋章摘句하는/ 썩은 선비의 흉내 내지는 않겠다.”

안목이 개입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주관적인 감상과 비평적 안목은 각 작품에 붙인 제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노래의 뜻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제목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 작품에서 무엇을 인상적으로 느끼는지에 따라 제목 붙이는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다. 먼저 작품의 첫 구절로 제목을 삼은 경우들이 보인다.¹⁷⁾ 둘째는 주로 사물에 해당하는 시적 대상을 가리키며 ‘○○의 노래’라고 붙이는 경우이다. ‘문(戶)의 노래’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셋째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의 노래’라고 붙이는 경우로, ‘머느리의 노래’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 두 경우는 손진태 자신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 거리를 두고 감상하느냐,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감상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시적 대상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 26수¹⁸⁾나 되는 데 반해, 시적 주체로 제목을 붙인 것이 3수¹⁹⁾에 불과한 것은 사설시조의 장르적 속성과 무관치 않다. 네 번째는 그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서 제목으로 붙인 경우로, 42수나 된다.²⁰⁾ 대개는 종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장에서도 한 두 마디를 취하기도 하였다.

도련님 나에게 사랑을 호소할 때,
백 번 남게 반복하여
고대, 광실, 노비, 전지,
세대도구를 갖추겠다고,
군게 맹세하고 말하는데,
남자에게 설마 거짓말은 없겠지 라고,
저기, 여기하고 따라가면서 왔지만
지금은 벌써 삼 년이 지나려고 하는데,

17) 22, 28, 30, 33, 34, 38, 45, 47, 53, 55, 62, 76, 78, 80, 81, 93, 99, 103, 112, 113, 121.

18) 4, 9, 11, 13, 18, 19, 25, 36, 37, 39, 40, 43, 46, 47, 48, 54, 57, 74, 75, 84, 89, 94, 95, 102, 110, 122.

19) 5, 23, 26.

20) 7, 8, 12, 20, 29, 44, 52, 58, 59, 60, 61, 70, 71, 73, 79, 82, 83, 85, 87, 88, 90, 92, 100, 101, 104, 105, 106, 107, 108, 109, 111, 114, 115, 116, 117, 118, 119, 126, 128, 129, 130, 131.

백 중에 하나의 실행도 없고,
 한밤중마다 불러내어,
 달콤한 잠조차 깨어버린다.
 지금부터는 가는 것은커녕,
 손가락으로 눈을 끌어 올리고
 입을 일그러지게 하겠다. #6<손가락으로 눈을 끌어 올리고>21)

이 작품의 제목 “손가락으로 눈을 끌어 올리고(指(ゆひ)で目(め)を引(ひ)き)”는 종장에 있는 말로, 『청옥』에 있는 작품과 대조해 보면 ‘눈 거러 달히고’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정병욱 교수는 ‘눈을 흘기고’로 주석해 놓았다.²²⁾ 손진태의 번역은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일부러 눈초리를 끌어 올리면서 화나는 표정을 짓는 것’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도련님이 아무리 虛言을 했어도 시적 화자는 여전히 그런 도련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나아가 일부러 화난 척 하려는 시적 화자의 귀여운 성품까지 짐작케 한다. 손진태가 이 작품의 제목을 ‘도련님 나에게 사랑을 호소할 때’나, ‘여자의 노래’라고 붙이지 않고 ‘손가락으로 눈을 끌어 올리고’로 붙인 것은 시적 화자와 도련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손진태는 자기 나름의 작품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135수의 사설시조 작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작품의 제목을 붙였던 것이다. 특히 사설시조의 제목을 명명하는 방식을 보면 작품 감상의 수준과 안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都련任 날 보려 흘제 百番남아 달니기를/ 高臺廣室 奴婢田畚 世間汁物을 주마 판처 盟誓 | ㅎ며 大丈夫 | 혈마 헛말하랴 이리저리 조춧 씨니 至今에 三年이 다 盡토록 百無一實하고 밤마다 불러내야 단잠만 썩이오니/ 自今爲始 ㅎ야 가기난 키이와 눈거리 달회고 님을 빗죽히 리라”(『청옥』 846)를 번역한 노래이다.
 22)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4는 가장 신뢰할 만한 주석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언급하는 정병욱 교수의 주석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손진태의 번역으로 본 난해어구의 의미

(1) 오역과 의역의 문제

사설시조 난해어구에 대한 손진태의 이해와 해석을 알아보기에 앞서 손진태의 번역이 오역이나 의역일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경우는 오역이거나 적절치 않은 번역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39에 나오는 ‘娼條冶葉²³⁾에서 ‘冶’자를 대장간으로 오해하여 이를 ‘창녀(女郎)와 대장간(鍛冶屋(かじや))’이라고 번역한 것, #46에서 ‘누은 희근 희근 누은 핏근둥’을 ‘눈을 흘끗흘끗하면서(め)をちらりちらりさせ乍(なから)’로 번역한 예, #63에서 ‘크나큰 툃기(돼지)’를 ‘어마어마하게 큰 툃기(滅法(めっぼう)に大(おお)きい一匹(いっぴき)の兎(うさぎ))’라고 번역한 예, #85에서 ‘여러 번 넘핀 가슴’을 ‘몇 번이나 넘어져서(幾度(いくども)も倒(たお)れて), 짜맨(結(むす)ぼれる) 가슴’이라고 번역한 예, #115에서 ‘돌蠻頭’를 ‘돌달래로 못 먹는 야생의 풀’이라고 주석한 예, #23에서 ‘건 밧타’를 ‘저쪽의 밧(向(う)の畑)’이라고 번역한 예, #91에서 ‘쇼대 남진의 밥’을 ‘남편(夫)의 밥’으로 번역한 예, #128에서 ‘혜울 일이 쏠혀 업다’를 ‘해야 할 일이 끊어지지 않다(絶(た)えてない)’로 번역한 예 등은 오역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의역의 문제가 있다. 손진태는 의역을 번역의 방침으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序說」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첫째, 長歌의 속에 호색에 관한 노래에 있어서는 末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과 일본말이 다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둘째, 類品の 異語를 통해 외설적인 해학이나 시시한 익살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언어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역을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 찾아도 알 수 없는 물건 이름 같은

23) ‘娼條冶葉’은 ‘어린 가지와 새롭고 예쁜 잎’이라는 뜻이며, 轉하여 ‘기생’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것을 고의로 생략하거나 다른 상응한 물건들의 이름을 代入했던 것도 몇 개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재빠르고 심술궂은
 軍奴(めあかし)의 모습을 보아라,
 쓰개에서는 눈만 내어
 어두운 구석으로부터 불쑥하고 서서
 좁고 작은 사람의 집에
 야밤에 달려 들어가서는
 좌, 우, 팔방의 구석을
 구석구석 뒤밀치고
 동쪽 하늘의 밝을 때까지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소동했기 때문에,
 과연 그도 지쳤는지
 마시던 탁주를 토해 내버렸다.
 술의 密造犯을 잡는다면
 軍奴의 놈부터 잡는 것이 좋다.

#37 <軍奴의 노래>²⁴⁾

이 작품의 원문을 보면 ‘몽둥이에 담방거지 뒤얹고서’ ‘조분집’에 밤중에 달려들어 좌우로 충돌한다는 표현에서 성적인 암시가 강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힘세고 사나운 남성의 폭력적인 성적행위를 표현한 작품이고, 종장은 “眞實노 醜酒를 잡으려면 저 軍奴놈부터 잡으리라”라고 되어 있다. 손진태는 이렇게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인 사설시조를 번역해 내는 데 당혹스러웠지만 고심의 결과 “되도록 온건한 말을 사용해서 번역했다”고 「序說」에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작품의 종장을 “술의 密造犯을 잡는다면(酒(さけ)の密造犯(みつぞうはん)を捕(つか)まえるなら)/ 軍奴의 놈부터 잡는 것이 좋다”

24) “셋팓고 사오나올슨 저 軍奴놈의 擧動 보쇼/ 半龍丹 몽둥이에 담방거지 뒤얹고서 조분집 內近흔디 밤중만 달너드러 左右로 衝突하야 시도록 나드다가 데라도 氣盡던지 먹은 濁酒 다 거이거다/ 眞實노 醜酒를 잡으려면 저 軍奴놈부터 잡으리라”(『청옥』 858)를 번역한 노래이다.

로 교체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軍奴의 횡포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처럼 해석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好色’이라는 주제 아래 배열되어 있고, 「序說」에서 “남자의 국부를 도라지나 인삼, 軍奴, 坊主, 蟹 등에 의탁하고, 여자 쪽은 눈, 발, 우물, 소중한 그릇, 小松林 등으로 부르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적인 내용임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다.

지난번 내가 사용하고 있던 황모의 붓에,
수양묵, 매월묵을 정말 검게 갈고
듬뿍 묻히고 창문의 위에 두었을 때,
대굴대굴 굴러가고 밖에 떨어졌다.
이제부터 달려가면
되찾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에라(ままよ), 누구라도 줍고 사용해도 좋다,
지독한 꼴 당할 것이다. #96<다루기 힘든(持も)てあました) 여자>²⁵⁾

위의 작품에 대해서 정병욱 교수는 ‘黃毛試筆’이 본래는 ‘족제비 털로 만든 좋은 붓’이라는 뜻이지만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음사로 보는 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진태는 ‘황모의 붓’은 ‘족제비의 털로 만든 상등의 붓’, ‘수양묵’은 ‘황해도 해주 産의 名墨’이라는 주석을 달고 별도의 성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序說」에서 ‘달이나 墨을 여자로 비유하는 것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도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好色’의 아래에 배열되지 않고, ‘해학에 관한 노래’라는 주제로 들어가 있다. ‘좋은 붓을 얻었다고 지금은 좋아하겠지만 가져가 그려보면 사람을 그리는(慕)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라는 내용의 원문은 ‘그리다’라는 동음이의어에

25) “俄者俄者 나 쓰던/ 되首陽 梅月 검게 가라 흙벽 짝어 窓前에 언저더니 덕터글 구르러 쪽
느려지거고/ 이제 도라가면 여더 올 法 이시련마는/ 아모나 여더 가져서 그려 보면 알리라”
(『청유』 967)를 번역한 노래이다.

기대어 웃음을 유발한 작품이다. 그런데 동음이의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수 없었던 손진태는 ‘붓’을 ‘다루기 힘든(持もてあました) 여자’로 의역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최상품의 붓과 목처럼 탐나는 여성이지만 그만큼 다루기 까다로운 이 여성을 얻어 가는 사람은 ‘지독한 꼴 당할 것이다.(酷ひどい目(め)に遇(あ)ふだらうよ)’라고 번역함으로써 번역문이 해학성을 잃지 않도록 애쓴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인 독자를 고려하여 의역을 한 경우가 있다. #4<별래의 노래>에서 ‘사령 같은 등에’를 ‘메아카시 같은 등에’로 번역한 것이 그러하다. ‘메아카시(目明(めあかし))’는 ‘軍奴’를 번역하는 말로도 쓰였는데, 여기서는 ‘사령’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까지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마에마는 손진태에게 보낸 엽서에서 ‘使令은「目アカシ(메아카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문한 적이 있었다.²⁶⁾ 그런데 다른 엽서를 보면 손진태가 처음에는 ‘めあかしのやうな(메아카시 같은)’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 ‘馬方のやうな(마부와 같은)’이라고 엉뚱하게 改正을 했다고 질책한 내용이 나온다.

마에마의 주장에 따르면 漢城 朝鮮代の ‘스령’은 평민을 못살게 굴면서 트집을 잡는 매우 성가신 존재인데 그렇다고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으므로, 소나 말의 피를 빼는 ‘등에’와 잘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의 ‘스령’은 ‘다른 나라 말로는 번역할 수 없지만 「메아카시」가 그나마 나은 번역이 아니겠냐’고 강조하고 있다.²⁷⁾ 메아카시는 일본 에도시대에, 하급 관리인 同心²⁸⁾에게 사적으로 고용되어 죄인의 수사나 체포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이들은 형사나 순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란 점에서 ‘사령’과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이미 언급한 작품인 #37<軍奴의 노래>에서 군노의 모습을 “쓰개에서는 눈만 내어”로 표현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 군노의 복색이 아니라 메아카시의 복색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35<더위 매도의 노래>에서는 ‘아랫목’을 모르는 일본인들을 위해 ‘아랫목’을 ‘炬燵(こたつ)’

26) 손진태 저, 최광식 편, 앞의 책, 141면.

27) 위의 책, 152면.

28) 에도시대에 餘力에 딸려 지금의 경찰 업무를 맡던 하급관리.

라고 번역하면서 ‘아랫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역은 그 자체로는 사실시조의 해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역이나 의역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이것도 작품 수용의 한 방식으로 간주하면 어떨까 싶다. 현대의 독자들도 일본인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시조 속에 나오는 사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독자들이다. 그 점에서 사실시조 속의 낯선 사물들의 이름을 독자에게 친숙한 사물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의역은 사실시조를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어휘 및 작중 상황의 명료화

이제 『朝鮮古歌謠集』을 참조하여 그간의 주석에서 불분명했던 어휘나 작중 상황이 분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음은 정병욱 교수의 주석에서 未詳으로 처리했거나 오해했던 구절들이 손진태의 번역을 통해 다소 분명해지는 사례들을 든 것이다.

#2 “머리 가진 것 갖초와 (…)
五江城隍之神과 南海龍王之神
손고초와 告祀홀제”에서 정병욱 교수는 ‘머리 가진 것’의 의미를 ‘떨은 ㄹ 가진 것’이라 보아서 ‘골라서 좋은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손진태의 번역은 ‘頭(あたま)の付(つ)いた犠物(いきもの)を擲(そ)へ供(そ)へて’라고 되어 있다.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머리 붙어 있는 犠牲을 갖추어 올리고’이다.

#6 ‘都련任 날 보려 홀제 (…)
高臺廣室 奴婢田畚 世間汁物
쥬마 판처 盟誓 | ㅎ머’에서 정병욱 교수는 ‘판처’를 ‘대단하게. 호언장담으로’라고 주석한 반면, 손진태는 ‘굳게(固(かた)く)’라고 번역하였다. ‘판처다’는 #108 “눈정에 거른 님을 오늘 밤 서로 못나즈호고 판 척 처셔 盟誓 | 바닷더니”에 다시 나타난다. 정병욱 교수는 『해동가요(이씨본)』의 ‘板 툇 처’를 주석했는데, 그 뜻은 ‘판때려’이고, ‘약속이나 시비를 가리어 결정하는 일’이라

고 풀이하였다. 그런데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시비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 작품에서도 손진태는 ‘판처’를 ‘굳게’로 해석하여 “약속은 굳지만(約束(やくそく)は固(かた)いけれど)”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로써 보면 ‘판처다’는 ‘맹세를 굳게 하다’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7 ‘저 건너 님이 오마커늘 (...) 上年 七月 열사흘날 갈가 버셔 성이 말너온 휘츄리 삼단 判然이도 날 속여고나’에서 ‘버셔 성이’를 정병욱 교수는 ‘벗겨성이’로 보아 ‘벌거숭이’로 주석한 반면, 손진태는 ‘껍질을 벗기고 세워 말려놓았던(皮(かわ)剥(は)いで立(た)たせて乾(かわ)かして置(お)いた)’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벗겨 세워’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15 ‘人間 離別 獨宿空房 삼긴 부테 어니 절 法堂 卓子 우회 坎中連호고 안것더냐’에서 ‘坎中連호고’에는 주석이 없다. 손진태는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濟(す)まし込(こ)んで) 앉아 있고’라고 번역하였다.

#22 ‘이제스 못보게호여이 못볼시도 的實호다 萬里 가는 길에 海鷗絶食호고’에서 ‘海鷗絶食’은 뜻이 잘 안 통한다. 『가곡원류』계 가집들은 ‘海枯絶息’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진태는 ‘바다 마르고(海(うみ)涸(か)れ) 숨도 끊어지고’라고 번역하여, ‘海枯絶息’의 뜻으로 보았다.

#24 “그 소가 우의가 부푸러 지질이 성헛가 호야”에서 ‘우의가 부푸러’는 특별한 주석 없이 일반적으로 ‘등이 부풀어’로 해석되고 있다. 손진태는 “등 가운데가 뼈처럼 되어서(脊中(ほね)が骨(ほね)ばって)”로 번역하고 있다. 소의 등이 부풀 것이 아니라 너무 말라서 뼈가 돌출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28 “지넘어 莫德의 어마네 莫德이 자랑마라 밤 中만 품에 드러 돌계잡자고”에서 ‘돌계잡’에 대하여 정병욱 교수는 미상이라 하고, 고정옥 교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계집을 돌계집 또는 돌치라고 하니, 자도 아이를 배지 못하는 잠을 돌계잡이라고 부른 것일까”라고 추정한 바 있다.²⁹⁾ 이에 비해 손진태는 ‘빙빙 돌고 잠버릇이 나쁘고(くるくる廻つて寝(ね)癖(せ)が悪(あく)’

로 번역하고 있다.

#36 ‘눈을 희번덕이며 다리 꼬아 너밀면서 용올니는 멩꽝이 슈멍꽝이나’에서 ‘용올니는’은 주석이 없는데, 손진태는 ‘手淫하는 것 같은(手淫(しゅいん)かく)’이라고 번역하였다.

#37 ‘셋팰고 사오나올슨 저 軍奴 놈의 舉動 보쇼’에서 ‘셋팰고 사오나올슨’을 정병욱 교수는 ‘군세고 사나올손’으로 주석한 데 반해, 손진태는 ‘재빠르고 심술궂은(素早(すばやく)意地(いじ)の惡(わるい)’으로 번역하였다.

#39 ‘날을란 속이고 何物 輕薄子을 日黃昏이 爲期호고 거긷 퉁바다 자고 가란 말이 입으로 참아 도아 나느야’에서 ‘거긷 퉁바다’를 정병욱 교수는 ‘거짓말로 꾸며’라고 주석하였다. 손진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서(濟(す)ました顔(かお)して)’라고 번역하고 있다.

#43 ‘글노 비겨보아도 兩呼將홀가 호노라’에서 ‘兩呼將’은 『해동가요(이씨본)』에는 ‘兩違將’으로 되어 있는데, 정병욱 교수는 ‘똑같은 역량으로 맞선단 말’로 풀이하였다. 손진태는 ‘差減이 영이 되겠습니다(差(さ)し引(ひ)きとんとんになりませうよ).’라고 번역하였다.

#52 ‘北京가는 驛驛官드라 唐絲실 훈테 부붓침호세’에서 ‘唐絲실 훈테 부붓침호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원래 <매화가>에서 온 구절로 정병욱 교수의 주석은 없다. 손진태는 “당나라의 실 한 짝 부탁하고(唐(もろこし)の絲(いと)一と攄(こり)頼(たのみ)”로 번역하였다.

#71 ‘世上富貴人드리 人生을 둘만 너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줄 모로논고’에서 ‘둘만 너겨’를 정병욱 교수는 ‘먹고 놀음 둘로만 여겨’라고 주석했는데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뜻과 맞지 않는다. 손진태가 ‘두 번 있다고 생각하

29) 고정욱 저, 김용찬 교수·해설, 『교주 교장시조선주』, 보고사, 2005, 199면.

는가(二度にとあると思(おも)ふのか)’로 번역한 것이 적절해 보인다.

#78 ‘가드マ 지즐러 죽을 만정 나는 아니 바리고 가려호노라’에서 ‘지즐러’를 정병욱 교수는 『해동가요(이씨본)』에 있는 ‘자즐러’로 주석하고, 그 뜻은 ‘놀려’로 보았다. 손진태는 ‘힘이 다하여 쓰러진다고 해도(力盡(ちからつき) 斃(たお)れるとも)’로 번역한바, ‘지즐러’를 ‘힘이 다하여’로 해석하였다.

#94 ‘長衫 쓰더 중의 적삼 짓고 念珠 쓰더 당나귀 밀밀치호고’에서 ‘밀밀치’를 정병욱 교수는 ‘당나귀의 안장이나 소의 길마에 달린 제구’라고 주석하였다. 손진태는 ‘額飾(がくしき)’으로 번역하여, ‘밀밀치’를 당나귀 이마에 두르는 끈으로 해석하였다.

#102 ‘닛다감 大珠 小珠 落玉盤 홀 제 썰날 뉘을 모로리라’도 의미를 알기 힘들다. 정병욱 교수의 주석은 없고, 손진태는 ‘헤어질 수 있는 누군가 있다고도 알지 못한다.(離(はな)れ得(え)る誰(だれ)があるとも知(し)らない)’라고 번역하였다.

#130 ‘뒷 東山 松枝 箭筒 우회 활지어 걸고 손조 구글무지 낙가’에서 ‘松枝 箭筒 우회 활지어 걸고’가 어떤 행위인지 기존의 주석으로는 알기 어렵다. 손진태의 번역은 ‘뒷산의 소나무 가지에(後(うしろ)の山(やま)の松枝(まつがえ)に) 전통을 매달고 활을 기대어 세우고(籠(えびら)を吊(つ)って弓(ゆみ)を立(た)てか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손진태의 번역을 주로 정병욱 교수의 주석과 대조해 보았다. 이 밖에도 몇몇 어휘의 차이가 있지만³⁰⁾, 주목할 만한 예들은 거의 언급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해 드러난 번역문의 유익함을 꼽자면 다음

30) #3 “西風이 고이 불 제”에서 ‘고이’를 정병욱 교수는 ‘이상히’로 본 반면, 손진태는 ‘조용히(靜(しず)かに)’로 번역하고 있다. 또 #17 “시삿갓 모시 長衫 곳갈에”에서 ‘시삿갓’을 정병욱 교수는 ‘가늘게 결은 삿갓(細(こ)삿갓)’이라 한 데 반해, 손진태는 ‘새로운 삿갓(新(あた)らしい笠)’이라고 번역하였다.

과 같다. 첫째, 명사의 나열로 되어 있는 사설시조를 일본어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머리 가진 것’을 ‘머리 붙어 있는 犠牲’과 같이 분명하게 주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거죽 뚫박아’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서’로 해석하거나, ‘돌계잡’을 ‘빙빙 돌고 잠버릇이 나쁘고’로 해석하는 등,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사설시조 연구자들의 토론을 요청한다는 의의가 있다.

(3) 난해어구에 대한 해석

이 절에서는 손진태의 번역을 단서로 삼아 난해어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병욱 교수의 주석뿐 아니라 최근 김홍규 교수의 강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해석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3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바흘 구루지 마오’에서 ‘벽바흘’도 알기 어려운 단어이다. 정병욱 교수는 ‘부엌 바닥’로 주석하였지만, ‘벽바닥’으로 되어 있는 이본들도 많아서 ‘부엌 바닥’로 확정짓기도 어렵다. 김홍규 교수도 잠정적으로 ‘부엌 바닥’이라고 해석을 했으나 의문이 남는다고 하였다.³¹⁾ 손진태는 이 부분을 ‘가슴 두드리고 소란떨기에는 이르지 마라(胸叩いて騒ぐには及びませぬ)’라고 번역해 놓았다.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 같은 것을 구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때린다고 본 것인데, 두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을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53 ‘가슴의 굴글 쫓아 윈식기 눈 길게 느죽느죽 쏘아’에서 정병욱 교수는 ‘윈식기’은 ‘윈새끼, 외로 낀 새끼’로, ‘느죽느죽(너숫너숫)’은 ‘느슨하게’로 주석하였으나, ‘눈 길게’는 따로 주석하지 않았다. 김홍규 교수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짚을 꼬아서 만드는 새끼는 밧줄 형태의 물건 중에서 표면이 가장 거칠고 마찰하는 굴곡이 많다. 더욱이 통상적 방식과

31)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제2주 강의자료, 23면.

달리 왼쪽으로, 게다가 눈 사이의 간격이 크게 꼬면 그것과 비벼대는 물체의 마찰은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³²⁾는 것이다. 손진태는 ‘원새끼’의 의미는 번역하지 않고 다만 ‘새끼줄을 거칠게 눈을 꼬고(藁繩(わら-なわ)を荒(あら)目(め)に緋(な)うて)’로 번역하였다. 정병욱 교수의 ‘느슨하게’보다는 김흥규 교수의 ‘거칠게’라는 해석에 가까운 번역인 것이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해독이 어려운 부분은 “나남죽 늪내되”인데, 정병욱 교수는 “내 남 할 것 없이 남이 다 하는 대로”로 주석하고, 김흥규 교수는 “나나 남이나 모두”로 해석하였다. 아쉽게도 손진태는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지 않다. ‘나남죽 남내되’는 #83<平盤에 수은을 올리고>에도 나오지만 역시 번역이 생략되었다.

#56 ‘四面이 거머 어둡 저뭇 天地寂寞 가티놀 썬 잇는되’에서 ‘가티놀’을 정병욱 교수는 ‘가치노을’ 즉 ‘사나운 파도’라고 주석한바 있다. 그에 반해 김흥규 교수는 오늘날 ‘까치놀’이란 말의 뜻 그대로 ‘석양을 받은 수평선 부근에서 물결에 번득거리는 노을’이라고 해석하였다. 손진태는 ‘사면에서는 안개가 끼어 오고(四面(しめん)からは霧(きり)が立(た)ってきて) 한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곳에서(一村先(いっすんさき)も見分(みわ)けることの出來(でき)ない處(ところ)で)’라고 하여 ‘안개’로 번역하거나 아예 원문을 바꾼 듯하다.

#88 ‘술이라 흥면 쇼 물혀듯 흥고 飮食이라 흥면 현 말 등에 藥 다오듯’도 해석이 매우 어려운 구절이다. 정병욱 교수는 ‘약 다오듯’을 ‘약 타오듯’으로 옮기고, ‘약을 잘 받아들이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에 비해 김흥규 교수는 『병와가곡집』에 나오는 ‘현 물등에 서리황 다앗 듯’이란 구절에 근거해서 “전근대 사회의 운송 수단이었던 말에게는 잦은 노역으로 인해 등이 허는 피부병이 많았다. 이 경우 석유황을 치료제로 바르는데, 그 자극성이 강해서 말이 놀라고 뛰는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 대목은 남편이 음식 먹기 싫어하는 태도를 말의 그런 행동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³³⁾ 그런데 손진태는 “음식은 늪다리 말의 등에 바르는, 바르는 약이 필

32) 김흥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제3주 강의자료, 16면.

요하듯 먹고(食物たべものは老(お)いぼれ馬(うま)の背中(せなか)に付(つ)ける付(つ)け薬(ぐすり)の要(い)るように食(く)い)”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이 번역에 따르면 ‘헌 말’은 ‘등이 헌’이 아니라 ‘늙은’의 뜻이고, ‘약이 필요하듯’은 많이 필요한 것인지, 적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버린다.

#113 ‘새악氏 書房 못 마즈 이쓰다가 죽은 여혼/ 건슴밭 썩슴 되야 龍門山 開骨山에 니싸진 늙은 중놈의 들부되나 되얏다가’의 해석이다. 정병욱 교수는 『청진』494 ‘늘글 중놈들되나 되얏다가’로 주석을 내면서 ‘늙은 중놈들의 베(布)나 되얏다가’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김홍규 교수는 ‘늙은 중놈들되나 되얏다가’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들보’는 ‘남자의 사타구니에 병이 생겼을 때 차는 형겔’을 가리킨다.³⁴⁾ 손진태의 번역은 이 부분을 ‘용문산, 개골산의/ 이빨 빠진 늙은 중의/ 猿股(ざるまた)³⁵⁾라도 되어 가지고’라고 번역하고 있어, ‘들보’를 ‘남자의 사타구니에 차는 형겔’이라고 본 김홍규 교수의 해석을 확정지을 수 있게 해 준다.

#132 ‘길삼 잘흔는 女妓妾과 술 심는 酒煎子와 胙부로 낫는 가문 암소’도 해석이 무척 까다로운 구절 중의 하나이다. 정병욱 교수는 ‘胙부’를 ‘胙部’로 보고, ‘胙’은 ‘소의 밥통의 고기’라고 하여, ‘안주를 낫는 검은 암소’의 의미로 보았다. 김홍규 교수는 ‘胙 부루 낫는’이라고 해석하고 ‘양’은 ‘좋은 안주거리인 양소의 밥통 고기’를 가리키고 ‘부루’는 ‘오랫동안 계속 해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³⁶⁾ 손진태는 ‘양부(내장) 끊임없이 내는 (胙部(ぞうもつ)始終(しよつちう)出(た)す) 검은 암소’라고 번역하여 전체적으로 김홍규 교수의 견해와 같다. 그러나 ‘胙部(ぞうもつ)’에 대해서 ‘위와 장 사이의 부분이고, 맛있는 안주가 되다.’라고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부루’를 두 단어로 보지는 않았다.

33) 위의 글, 17면.

34)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제4주 강의자료, 12~13면.

35) 猿股(ざるまた): 남성의 팬티를 가리키는 말.

36)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제2주 강의자료, 7면.

이상의 손진태의 번역을 통해서 보아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난해 구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양부’는 ‘좋은 안주거리’로, ‘들보’는 ‘남자의 사타구니에 차는 형겔’으로, ‘원식기 눈 길게 느측느측 꼬아’는 ‘새 끼줄의 눈을 거칠게 꼬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어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손진태의 번역은 작품의 어조와 분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산매 같은 저 여자,
언제까지 사람을 약 올릴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사주면 좋을 것일까.
비단의 장옷, 단자³⁷⁾의 치마,
구름 같은 北道의 가발³⁸⁾,
옥의 비녀, 竹節의 비녀,
은의 주머니 칼(소장도), 금의 주머니 칼(소장도),
강남의 산호의 다양한 장식,
천도를 넣은 금의 지환,
석용황, 진주, 머리 묶는 리본(リボン),
자수의 들어간 짚신 등을 사줄까.
여자야, 그런 것은 잠꼬대 같다고
방긋 웃으면서 천금의 언약을
잠시 허락해주지는 않겠는가. #47<산매 같은 여자>³⁹⁾

이 작품의 원래 노래를 보면 종장이 “저 閨氏 一萬兩이 솜자리라 곱 갖치 웃는 드시 千金 쓴 言約을 暫間 許諾히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37) 단자(緞子): 생사(生絲) 또는 연사(練絲)로 짠, 광택과 무늬가 있고 두꺼운 수자직의 비단.
38) 손진태는 주석을 통해서 “평안·함경 등의 北國의 여자는 머리카락이 유난이 길다.”고 설명하고 있다.
39) “싱긋 갇튼 저 閨氏 남의 肝腸 그만 굶소/ 몇 가지나 하여 주료 緋緞 당옷 大緞 치마 구름 갇튼 北道 다리 玉빈허 竹節 빈허 銀粧刀 金粧刀 江南서 나온 珊瑚柯枝 자기 天桃 金가락지 石雄黃 眞珠 당기 繡草鞋를 하여 줌세/ 저 閨氏 一萬兩이 솜자리라 곱 갖치 웃는 드시 千金 쓴 言約을 暫間 許諾히시소.”(『청옥』 817)를 번역한 노래이다.

이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 초·중장에서 온갖 값비싼 물건들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나서, 종장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저 閹氏 一萬兩이 씬자리라”라고 달래면서 자신에게 “千金 쓴 言約을 暫間 許諾하시소”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읽힌다. 박을수 교수는 “千金 쓴 言約”을 “천금이 쓴 언약”이라고 현대어 역을 내었는데⁴⁰, 역시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千金 쓴”을 『해동가요(주씨본)』에 의거해서 “千金言約”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공짜로 천금의 언약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곳 갖치 웃는 드시’가 앞뒤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一萬兩이 씬자리라’라고 말하는 주체는 남성인데, ‘곳 갖치 웃는’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손진태의 번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그런 것은 잠꼬대 같다고(そんなものは 寢言(ねごと)のようだと)” 말하면서 ‘방곳’ 웃는 주체가 여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남성은 아마도 남의 간장을 꿰를 만큼 매력적인 여성을 유혹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것 같다.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말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인 스스로가 ‘그런 것은 다 부질없다’고 웃으며 공짜로 천금 같은 언약을 해주기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손진태의 번역은 남성의 속마음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해석이다.

손진태는 인물의 대화에 인용부호를 넣어, 어떤 인물이 어디까지 말하는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배꽃이 이슬에 젖을 때까지
 누구에게 붙잡혀서 안온 거야’
 ‘옷자락을 꼭 쥐고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울며 붙잡는 것을
 억지로라도 뿌리치고
 나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남아, 그의 입장이라도 되어서
 헤아려 보는 것이 좋다.’ #109<헤아려 보는 것이 좋다>⁴¹⁾

40) 박을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1권 시조 Ⅱ,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5, 380~381면.

41) “梨花에 露濕도록 뉘게 잡피여 못 오든가/ 옷자락 뷔혀잡고 가지모소 흐느티 無端히 썰치

원문인 『청육』 674에서는 종장의 “저 님아 헤여 보소라 네오 기오 다르라”가 누가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초장과 중장에서 서로 말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초장의 화자가 다시 “저 님아 헤여 보소라 네오 기오 다르라”라고 추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하도 울며불며 붙잡아서 뿌리치고 오지 못해서 늦게 왔노라’는 남성의 변명에 대해서 ‘님아,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붙잡는 그 사람의 마음과 붙잡히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냐’라고 힐난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손진태의 번역에서 인용부호가 걸리는 곳을 보면 중장에서 답변을 시작한 남성이 끝까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남성 화자는 ‘님아, 그의 입장이라도 되어서(君(ニム, にむ)よ、彼(かれ)の身(み)にもなって) 헤아려 보는 것이 좋다(考(かんが)へて見(み)るが善(よ)い)’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나 나를 붙잡던 여인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번역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근거도, 배척해야 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이 다양한 작품 읽기를 견인해 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손진태의 사설시조 번역을 참조하여 사설시조에 나오는 난해어구들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 있다.

2장에서는 『朝鮮古歌謠集』에 譯載된 사설시조를 개관해 보았는데, 여기서 손진태가 사설시조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만 보아도 사설시조에 대한 그의 비평적 안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손진태의 일본어 번역을 우리말로 재번역하여 난해어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의 일본어 번역 가운데는 오역과 지나친 의역도 없지는

고 오자흥도 어려웨라/ 저 님아 헤여 보소라 네오 기오 다르라”(『청육』 674)를 번역한 노래이다.

않으나,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오늘날 사설시조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만 하다. 첫째, 손진태의 번역을 우리말로 재번역해 보았을 때 작중 상황이 원래 사설시조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애매하거나 未詳으로 남아 있던 어휘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사설시조의 난해어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손진태의 사설시조 번역의 전모가 해명된 것은 아니다. ‘もの’나 ‘わ’와 같은 여자 말투, ‘のか’와 같이 강조하는 말투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아직 단가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단가의 번역까지 모두 살피고 나면 이 글에서 확정을 짓지 못한 난해구들의 의미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리라 보며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청구영언(육당본)』(규장각 소장)

고정옥 저, 김용찬 교주·해설, 『교주 고장시조선주』, 보고사, 2005.

김대행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권 시조 I,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3.

박을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1권 시조 II,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5.

손진태 저,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2-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손진태, 『詩調와 詩調에 表現된 한국사람』, 1926. 5(『손진태선생전집』 6권, 태학사, 1981.)

손진태, 『朝鮮古歌謠集』, 刀江書院, 1929(『손진태선생전집』 4권, 태학사, 1981.)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4.

진동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1권 시조 III,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6.

2. 논저

김홍규,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사설시조의 세계」,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 강의자료 (서울역사박물관; 2010.8.28-2010.9.25).

권순희, 「남창 손진태의 歌集 傳寫와 『朝鮮高歌謠集』 편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김석희 「사설시조 <각시디 내 쫓이 되나>의 의미와 의미변용」, 『조선후기 시기연구』, 월인, 2003.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2005.

Interpretation of unintelligible phrases of *Saseol-sijo* through
Joseongogayojip(朝鮮古歌謠集), edited and translated by Son Jin-Tae

Ko, Jeong-He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fer the meaning of unintelligible phrases through Japanese translation of *Saseol-sijo* by Son Jin-Tae.

In chapter 2, we assume the critical length of his interpretation of *Saseol-sijo* through the style he entitled each work.

In chapter 3, we find that most of his translations can help our understanding of unintelligible phrases of *Saseol-sijo* although there were a few mistranslations and excessive broad translations.

Retranslating his translations into Korean, we could find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First, situation of the translated text became more concrete than that of the original text. Second, there were some ambiguous or unintelligible phrases which were inferable by Son's translation. And third, his translation provides the key to various interpretations of *Saseol-sijo*.

The result of this paper is limited since we have examined only one section of *Joseongogayojip* 朝鮮古歌謠集 that focuses on *Saseol-sijo*. Therefore more elaborate research is required about the whole text.

Key words : Son Jin-Tae, *Joseongogayojip*(朝鮮古歌謠集), *Saseol-sijo*, unintelligible phrases, translation of *Saseol-sijo*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